**국보**

**다다이코(축제용 대형 북)**

이 다이코 북 세트는 가스가 와카미야 온마쓰리 축제에서 전통 궁중 무용의 한 형태인 부가쿠(무악)의 반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북은 1200 년에 처음 만들어져 1976 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대신 재현된 북이 사용됩니다.

부가쿠는 '좌무'와 '우무'의 두 가지 무용으로 구성됩니다. 좌무(사마이)는 중국에서 유래했으며 우무(우마이)는 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도 '왼쪽' 북과 '오른쪽' 북이 있으며, 각 춤을 출 때 그에 맞는 북이 사용되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북에 새겨진 조각과 다른 장식에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음과 양의 상징도 포함됩니다. 음양의 상반된 힘의 조합에 따라 오른쪽 북에 있는 봉황과 달은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음'을 나타내며, 왼쪽 북에 있는 용과 해는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양'을 나타냅니다.

북의 높이는 커다란 해와 달 모양의 꼭대기 장식을 포함하여 대략 6.5m 입니다. 가스가타이샤 신사의 그림 기록을 보면 북에 훨씬 더 큰 꼭대기 장식이 있었으나 1886 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